

## 빈, 기후친화적인 건물난방 이니셔티브 ‘Get out of gas’ 운영

<https://www.wien.gv.at/presse/2023/02/15/czernohorszky-gaal-hanke-projekt-huttengasse-als-vorzeigebeispiel-fuer-raus-aus-gas>  
<https://www.wien.gv.at/stadtentwicklung/energie/pdf/raus-aus-gas-projekte.pdf>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은 2040년까지 건물난방 분야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기후친화적인 건물난방 이니셔티브인 ‘Get out of gas’를 운영한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는 건물 부문이 차지하고 있으며, CO<sub>2</sub> 배출량의 약 90%는 가스난방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빈은 주거용 건물의 단열개조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2005년 이후 난방 및 온수에 대한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17%가량 감소하였다. 또한 ‘Get out of gas’를 통해 환경에 유해한 화석 연료를 대신하는 지속가능한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여 건물의 냉·난방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향후 3년 동안 42억 유로(약 5조 8,565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난방 시스템을 설치하고, 주택소유법(WEG), 임대차법(MRG), 가스산업법(GWG) 등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하며, 지열 발전 및 열펌프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을 통해 지역난방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표적 사례인 Huttengasses 프로젝트는 주거용 건물의 기존 가스난방을 ‘열펌프를 갖춘 중앙난방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단 3일간의 리모델링을 통해 옥상에 열펌프와 건물 외벽에 온수관을 설치하고 기존 시스템과 일부 연계함으로써 거주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를 대체하는 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수 있었다. 향후 2025년까지 100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MA20/Christian Furrner



Get out of gas의 대표적 사례인 Huttengasse 프로젝트

출처: 빈시 홈페이지(<https://www.wien.gv.at/presse/2023/02/15/czernohorszky-gaal-hanke-projekt-huttengasse-als-vorzeigebeispiel-fuer-raus-aus-gas>, 검색일: 2023.3.3.)